

대물림 바다에 몸 싣고 '휘이이'

발로 딛는 잠녀의 삶-제주시 행원 어촌계

등록 : 2008년 07월 21일 (월) 15:31:23
최종수정 : 2008년 07월 21일 (월) 15:31:23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행원리 바닷가.

**‘머정’따라 물건 희비 달라진다 믿음은 여전
한모살~더뱅이물까지 돌아가며 나눠 작업
바다 바람 체험 마을 조성 중심…변화 기대**

수년 전만 해도 마을 여자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바다에 몸을 던졌다.

더위를 피해, 놀이를 위해서가 아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를 주워 물리는 것부터 해서 바다 눈을 밝히고 물 속에서 오래 숨을 참는 법을 배웠다. 물건을 찾아내기라도 하면 어머니 숨비 소리보다 큰 환호를 질렀지만 어머니는 한번도 칭찬을 해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된 여자아이들은 그 옛날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딸을 데리고 바다로 나섰다. 지금은 옛날 이야기가 됐지만 말이다.

△‘머정’따라 웃고 울고

이곳 바다에 수시로 드나드는 잠녀는 80명이나 된다. 취재를 위해 찾아갔던 날은 마침 공동 양식장을 해경하는 날이라 100명 남짓한 잠녀가 바다로 나섰다. 탈의장은 북적이다 못해 비좁을 정도다. 줄지어 선 스쿠터 행렬이며 잠녀들이 남기고 간 구덕 등이 웅기종기 자리를 잡은 모습 역시 진풍경이다.

곳물질을 하는 삼시 잠녀 중 40대가 10명, 50대가 20명이나 되지만 60대 25명·70명 20명·80대 5명 등 고령 잠녀 비율이 만만치 않다.

바다와 가까운 물에 웅웅 소리를 내는 거대하고 하얀 풍력발전기가 돌고, 바다에는 이내 형광주황색 꽃이 피기 시작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잠녀들이 태왁에 씌운 형광주황색 커버가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하나의 경계를 이룬다.

행원의 소라 TAC 물량은 연간 5만kg이며, 1만5000kg 상당을 수확하는 천초는 모두 계통출하 한다.

해수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백화현상이 진행되면서 툿이며 다른 물건들도 예년만 못하지만 바다 의존도만은 여전하다.

공동양식장 작업에서도 기준은 있다. 전복도 10cm이상만 망태기에 담는다. 4cm가 되지 않은 오분자기는 다음을 위해 남겨둔다.

오늘 ‘머정’은 누구한테 있었을까. 부산했던 양식장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잠녀들의 망태기는 ‘머정’에 따라 울고 웃는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바닷가에 들어도 잠녀들의 망태기는 똑같지 않다. 그날 머정에 따라 좋은 물건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값나는 물건을 독차지할 수도 있다.

“그 어른은 머정이 있어서...”. 뒤를 흐리듯 내뱉는 말에는 질투와 부러움이 반반이다.

△ 바다 나눠 공평하게 작업하기

예전 행원 바다는 6개 마을, 6개 조합이 나눠 일궜다. 툿이며 미역이 한창 좋았을 때 일이다.

먼바다 수심도 깊지 않아 물질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월정 경계 한모살부터 앞바당, 뒤테지, 더뱅이물까지 5개로 나누고, 나머지는 앞바다 섬과 파래바당을 묶어 6개 조합이 나눠 돌아가며 작업을 했다.

툿이 거의 사라지고 미역도 제값을 못하게 되면서 바다는 6개 동이 2개동씩 조를 이뤄 툿·천초 등을 작업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한모살 부근이 툿 수확량이 좋다 뒤테지 부근은 많이 가문 상태.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균형도 맞추고 바다 사정도 살핀다.

천초는 6개동별로 잠녀 20명씩을 선발, 두개 동씩 3조가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작업을 한 후 동에 기부금을 내고 나머지는 개인 소득으로 한다.

이곳 잠녀들은 조금부터 7물까지 8일 작업을 한다. 대부분 작업은 뒤테지에서 하지만 더뱅이물은 겨울 하늬바람이 불어도 잠녀들을 품에 안아준다.

육상 양식장만 30곳. 풍력발전단지 등이 조성되고 마늘이며 당근, 쪽파 등 발농사도 제법 이뤄지지만 아직은 물질 수입이 낮다.

행원 바다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 행원은 구좌읍 서부권역 7개 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바다 및 바람체험 테마마을의 중심이다.

올해 정주항 등 기반시설에 잠수 편의시설인 작업장과 잠녀탈의장과 어선원 휴게소를 신축하고 어항 내 물양장 및 해안소공원을 조성된다.

하지만 아직 구색을 맞추는 작업만 이뤄지고 있을 뿐 비수기 고용창출 등 지역에 얼마만큼 경제적 혜택을 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김승안 행원 어촌계장(48)은 “뭔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 없이 는 더 이상 바다에서 건질 것이 없을 만큼 바다가 가물고 있다”고 말했다.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월정어촌계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